

전통음악·화려한 춤사위 진도서 선봬



국립남도국악원 개원2주년 기념  
오늘 국립국악원 초정 특별공연

장에서 개원 2주년 기념 특별공연을 갖는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예술감독 곽대규)과 무용단을 초청해 마련한 이번 공연에서는 현대적 감각에 맞춘 우리 전통음악과 아름답고 화려한 춤사위를 만날 수 있다.

1부는 기악공연으로 꾸며진다. 창작악단의 '달빛 항해'를 시작으로 소금과 가야금·해금이 어우러진 '아리랑 변주곡', 대금·피리가 화음을 맞춘 '외로운 누나'가 사립이다. 관현악곡 '이어도 가는 길' 등이 연주된다.

무용단이 무대에 오르는 2부에서는 쳐용무, 장고춤, 한랑무, 부채춤 등을 만날 수 있다.

광주시립합창단 '가곡의 밤' 연주회

오늘 광주문예회관 국과 아리아의 밤'을 주제로 연주회를 갖는다. 14일 오후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이날 공연은 단원들의 독창 무대로 꾸며진다. 출연진은 표현진·박광석·윤소정·우성식·안소현·김창식·김경혜·홍명식·조정구·윤소영씨 등.

연주곡들은 이ه림곡 '코스모스를 노래함', 이수인곡 '불타는 강대나루' 등 한국가곡과, 유명 오페라의 아리아인 도니제티의 '돈 페스칼레' 중 '그 눈길이 기사의 마음을 사로잡아',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중 '나준비됐나' 등이다.

마지막 무대는 합창곡 '산촌'과 '호해피 데이'가 장식한다.

/김민경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문화재 15점 기증받아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은 탑진 최씨 흐로공과 종친회로부터 청동용기 등 9건 15점의 문화재를 기증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기증문화재는 장성군 황룡면 와릉리에 있던 탑진 최씨 흐로공과 선조의 묘역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것들로 청동합 등 청동용기 10점, 청동순기각 1점, 구슬 3점, 패용구 1점 등 총 15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첨단일계공인중개사

☎ (010) 4586-5011 ~ 6215

(첨단지구 부업A LC빌딩 사거리)

## 첨단중심 상업지역

·첨단중심상인회 예정지점 200평  
·부업·호반·경문로부지 145평, 135평  
·신가동 상업지역 100평, 회원, 음식점  
·제작 투자유망 230평

## 첨단 원룸 건물급매

·대2 72평 월15평 부록금 쓰리  
·월1개 보여보내면 월450만 원 예상 조  
정가

## 첨단 아남전자 인근 투자지

·첨단, 남면, 진원면 텁암 대전면 금매  
·불 담당 상권환경

## 상가를 찾는다

·대70 건110 보금천면 월160만 원 매매  
·40평(조경) 호반2동 미끼로보 입구  
·월세 조성고

## 첨단 인근 자연·생산농지

·부곡·지어동 30평도로인근 전·후  
면 도로변 가든 칠장, 풍물물류공장최  
적 440평

## 경관좋은 종교용 최적지

·곡성 목파면에서 5분거리 죽고, 휴  
양, 토지사용, 물파산 아주좋음  
1700평 매매14억

## 자연 준공업지역 급매

·자연동 준공업지역 145평도로길 680  
평 72평 원장부지 부자 적합

## 금보부동산컨설팅

☎ (010) 261-8949 월 011-602-2233

(부구 우신A 문화초등학교 경문로)

## 토지·매매

·첨단동 봉사동·관내면 지역주택지역 1종  
지역 145평, 135평, 125평  
·부업·호반·경문로부지 145평, 135평  
·신가동 상업지역 100평, 회원, 음식  
점 제작 투자유망 230평

## 첨단 원룸 건물급매

·대2 72평 월15평 부록금 쓰리  
·월1개 보여보내면 월450만 원 예상 조  
정가

## 첨단 아남전자 인근 투자지

·첨단, 남면, 진원면 텁암 대전면 금매  
·불 담당 상권환경

## 상가를 찾는다

·대70 건110 보금천면 월160만 원 매매  
·40평(조경) 호반2동 미끼로보 입구  
·월세 조성고

## 첨단 인근 자연·생산농지

·부곡·지어동 30평도로인근 전·후  
면 도로변 가든 칠장, 풍물물류공장최  
적 440평

## 경관좋은 종교용 최적지

·곡성 목파면에서 5분거리 죽고, 휴  
양, 토지사용, 물파산 아주좋음  
1700평 매매14억

## 자연 준공업지역 급매

·자연동 준공업지역 145평도로길 680  
평 72평 원장부지 부자 적합

## 개관 14년 광주시립미술관 세계 유명작가 전시 고작 한번뿐

# 시민 문화 수요에 발맞춘 '공격적 전시마케팅' 시급

광주시립미술관이 시민들의 문화수요에 걸맞는 전시를 유치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미술관으로서 공적 기능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예산·시설 등 현실적인 여건을 내세워 피카소 등 해외 거장전 유치에 소극적인 데 반해 여건이 비슷한 타 지자체에서는 미술사에 뛰어난 족적을 남긴 작가들의 전시를 잇따라 개최해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피카소전,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투오로 등 르버스터급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반면 광주시립미술관은 개관 14년이 됐지만 지난 96년 리시아 리얼리즘의 거장 일리야 레핀 특별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세계 유명 작가들의 전시 개최 사례가 없다.

광주 시립미술관은 지난 2004년 피카소전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예산·시설 문제 때문에 포기해야 했다. 항온·항습 장치 등 작품을 전시할 만한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1년 전시 예산이 2억3천여만원에 불과해 1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해외 거장전 유치는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 문화계에서는 대전 등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 광주시립미술관의 문화 마케팅에 대한

의지와 마인드 부족을 꼬집고 있다.

실제 대전시립미술관은 인구(144만) 수준이나 전시 예산(2억5천만원)이 광주시와 거의 비슷하지만 세계적인 거장 '투오'전을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대전 시립미술관은 이 전시를 위해 자체 기획팀을 꾸려 무려 2년여 동안이나 공을 들였다. 시를 설득해 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나머지 예산 6억원은 공동 주최사를 유치해 마련했다.



대전시립미술관이 지난 5월부터 개최하고 있는 '투오-영훈의 자유를 지킨 회가'전에 4만여명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N-POOL 대전일보=신호철기자

할 뿐, 돈은 나중의 문제다"며 "전시 내용이 좋을 경우 투자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같은 방식으로 올초 사갈전과 마티스전에서 각각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시민 문화수요 충족과 수익사업,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에 대해 오건탁 광주시립미술관은 "세계적인 거장들의 전시회를 위해서는 10억원 가량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예산 확보가 어려운 데다 전시장 여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새로운 시립미술관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 규모가 큰 전시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예산·시설 탓... 해외 거장전 유치 소극적

## 대전-투오전, 서울-피카소전 개최와 대조

대전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처음 시도라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모든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끝에 전시를 유치했다"며 "경제적인 효과를 떠나 국·공립미술관은 시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수준 높은 전시를 유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광주시와 여건이 다르지만 현재 피카소전을 개최

하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은 시 예산을 사용치 않고 있다. 미술관이 기획, 전시장 제공, 인력지원 등을 맡고 대행사가 예산과 전시운영 등을 책임지는 파트너십으로 잇따라 해외 작가들의 대형전시를 열고 있다.

서울 시립미술관의 한 관계자는 "유명 전시 개최에는 무엇보다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



정도로 많은 유럽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생의 이면'은 제1회 대 산학상(1993년) 수상작이다.

이씨는 '생의 이면'이 프랑스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페미나상'(Prix Femina)에

최종 후보에까지 오른 적이 있어 이번 '식물들의 사생활'도 주목받는 것 같다"며 "인터뷰를 하려왔던 기자들도 가져본 상태의 책이 너털웃더해질 정도로 읽은 뒤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식물들의 사생활'은 불구가 된 형, 형의 애인을 사랑하는 동생, 첫사랑에게 영원한 사랑을 바친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서 완전한 순결을 발견한 아버지 등 사랑을 이를 수 없는 인간들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소설의 '식물'은 육체적 사랑을 상징하는 '동물성'의 반면 개념이다.

번역은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최미경 교수와 프랑스 교육부 장·노엘 주제 아래국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이승우 소설 '식물들의 사생활' 불어로 출간



〈사진=대신문화재단 제공〉

## 2000년 '생의 이면' 이어 두번째

조선대 국문과 교수이자 소설가 이승우(46·작은 시인)씨의 장편소설 '식물들의 사생활'(문학동네 펴냄)이 불어로 번역, 출간된다.

이씨는 책의 번역을 지원한 대산문화재단과 불어판 출판을 맡은 퀼마(Zulma)출판사의 초청을 받아 지난 6월 중순 일주일여 흥보를 위해 프랑스에 다녀왔다. 불어판 제목은 'La vie révée des plantes'('식물들의 꿈꾸는 삶')이란 의미다.

현재는 책의 가제본이 끝난 상태이며, 여름 휴학이 끝나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간될 예정이다. 이씨는 "기자와 소매상을 상대로 회견을 몇 차례 가졌다"며 "이번 불어판 출간이 두번째여서인지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작품 '생의 이면'(불어 제목 'L'Envers de la vie')이 불어판으로 출간되면서 프랑스 문단에 이름을 알렸다. 당시 불어판 '생의 이면'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의 문화면 톱기사로 다뤄졌다.

번역은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최미경 교수와 프랑스 교육부 장·노엘 주제 아래국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임대 매매 전문중개업소 입니다.

위치 : 충장로2가(제일  
은행에서 충장로  
쪽 50m 3층)

## 한 일 지 도 (주)

☎ (010) 528-1409, 월 010-2466-1409  
(지산동 법원앞)

## 2006 최신 광주시 지번도 책 판매 ★ 체크된 부분은 티사와 비교 활용

### 이번에 새로 나온 광주시 책은

- ① 광주시 전지역 그린벨트 2차 해제 198구 수록
- ② 해제된 구이에 전지역 계획선 수록
- ③ 해제된 구이에 자연녹지, 주원, 주차장 용지 수록

★ 남구 효천 역세권 1, 2지구 비운다리 수록

★ 광주시 용산동 턱지개발 계획선 수록

★ 동구 내남동 그린벨트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 광주시 선교동 그린벨트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 동구 선교동 베차동부 주지 수록

★ 광주시 무인간 고속국도 자세히 수록, 서광산 I-C 수록

★ 광주시 내남동 그린벨트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 광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공 APT 배치도 수록

★ 흥동 대2동 건강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공 APT 배치도 수록

&lt;p